

전북형 외국인 근로제, 안정적 관리 ‘주목’

도, 계절근로자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 중점… 도입 인원 3배 증가에도 이탈률 1%미만 유지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낮추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도입은 늘리고 이탈은 줄인 ‘전북형 질적 관리’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기존 2,826명에서 8,392명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증가는 농촌지역 등의 수요 발생에 따른 것으로, 8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63% 수준인 반면, 전북은 80%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수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며, 이탈률은 6.6%에서 0.7%로 크게 개선됐다.

전북자치도는 근로자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선발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MOU 체결국 현지 선발 비중을 확대해 인력의 신뢰성과 근속률을 높이고 있다. 현지선발 참여 지자체는 2023년 4곳에서 2025년 현재 11곳으로 늘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브로커 개입을 줄이고 이탈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2022년 2개소, 2023년 3개소, 2024년 2개소, 2025년 3개소 등 총 10개소까지 확장(준공 4, 추진 중 6) 중에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여기에 내년부터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해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정주여건을 더욱 확충해 주거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고용주 136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인권보호, 성범죄 예방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고용주-근로자 간의 상호 신뢰도 높이고 있다.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도 강화됐다. 전북도는 시군을 통해 약 1,3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방, 응급대응,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력 향상은 물론, 정착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농촌인력증개센터와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해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북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 숙소 지원 확대, 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제3회 농생명산업대상 수상자 선정

군산한우농가정운섭씨·익산화선마을·김제 고운주 다복술식품 대표

전북자치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우수 농어업인과 단체를 선발하는 ‘제3회 전북 농생명산업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지속가능 농어업 △활력있는 농어촌 △미래먹거리 농생명 등 3개 부문에서 각 1명(단체)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52일간 시·군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현지조사와 심사를 진행했으며, 현지조사 통과자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전북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속가능 농어업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군산 한우농가 정운섭 씨는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을 역임하며 한우 수급조절과 고급육 차별화를 선도하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활력있는 농어촌 분야에는 주민 참여형 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 익산 성당면 화선마을이 수상했다.

미래먹거리 농생명 분야는 김제의 다복술식품 대표 고운주 씨가 차지했다. 고 씨는 2005년 다복술식품을 창립해 원료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사업을 선도해왔다.

수상자에게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영농·어 강사 우선 위촉 △전북대 미생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면제(연 2회) △전북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만호 기자

‘2025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한-베,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도내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오는 24일까지 ‘2025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베트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내 수출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트남 현지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한-베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도내에 분사·공장·연구소·지사 보유한 베트남 진출 희망 기업 중 전북 3대 주축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작물기능성기예부품 △탄소융복합소재 분야 기업이다.

참가 신청 기업은 수출 경쟁력과 시장성 평가를 거쳐 5개사 내외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현지 숙박비,

교통비, 대관료, 통역 지원 등 실질적인 경비가 제공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11월 23~29일 베트남 호치민 일대에서 열린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지 기업 방문, 시장 전문가 컨퍼런스, 한-베 기업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www.jtp.or.kr)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14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지역 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www.srntech.go.kr/region/mr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 지역균형사업팀(063-219-2124)으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농생명·신산업·균형발전 중심 ‘국정과제 맞춤 전략’ 모색

도, ‘국정과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릴레이 세미나’ 16일까지 개최… 새 정부 국정과제 부응하는 전북형 발전전략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까지 3일간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국정과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도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의회, 전북연구원을 비롯해 국회연구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전북형 성장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전북이 강점을 지닌 △혁신성장(농생명) △진짜성장(신산업) △균형성장(5급3복, 문화·관광)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도정과 국정과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세미나 첫날인 14일 ‘혁신성장’ 세션



14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열고 있는 ‘국정과제 대응 전북도 릴레이 세미나’

에서는 이인규 글로벌스마트팜연구소 대표가 ‘AX의 혁신거점, 자이언트 스마트팜 조성 전략’을, 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 단지 구축 방향’을 발표하며 농생명산

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15일 ‘진짜성장’ 세션에서는 AI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혁신 방안이 논의된다. 이정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이 ‘AI 시대, 전북의 도전과 기회’를, 정택중 한국

RE100협의회 의장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을 주제로 전북 산업의 새 방향을 모색한다. 16일 오전 ‘균형성장’ 세션에는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5급3복 구상 속 전북의 미래 성장 비전’을, 최준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균형발전 시대 새만금 메가특구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양혜원 본부장과 박경열 기초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각각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신정부 관광정책과 전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문화와 관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정과제와 도정 핵심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연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수립 위한 ‘주민욕구조사’ 실시

도내 14개 시군 9100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도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되며, 도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전문조사원 80명을 투입해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개 시·군 9,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 일반 현황 △사회보장 관련 욕구 △복지 분야별 시급성 및 노력 체계도 △생활환경 및 지역 만족도 등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는 내년 2월까지 분석·보고서로 정리해 각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시행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함께 전북, 착한 한 끼’ 나눔사업, 우리말 실천 우수사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함께 전북, 착한 한 끼’ 사업이 제579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올해의 우리말빛’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람 수여식에서 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글학회, 국어문화원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올해의 우리말빛’은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실천한 공공기관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우리말의 꿈과 뜻을 잘 드러낸 이름으로 가려 뽑아 매년 올해의 우리말빛으로 인증하고 있다.

‘함께 전북, 착한 한 끼’ 사업은 2009년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3년 ‘함께전북, 착한 한 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도민이 함께 나눔의 마음으로 한 끼 식사와 전문봉사활동을 함께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정을 회복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전북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취지를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